

9. 탐라(耽羅) 최초의 포구(浦口) 건입포(健入浦)¹⁶⁾

- ◎ 고대(古代)부터 현대(現代)까지 술한 이야기로 물결쳐
- ◎ 유구(琉球) 왕자는 비통한 시(詩)를 남기고 …
- ◎ 일인(日人)들 어민(漁民) 참살, 외교(外交) 문제로 비화(飛火)

제주항을 제주 사람들은 거의 산지향(山地港)이라고 부른다. 산지천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한문으로 표기된 것을 보면 산지향보다는 산저포(山底浦)로, 산지천은 산저천(山底川)으로 된 것이 훨씬 더 많다.

비애(悲哀)의 설화(說話)를 간직

운양(雲養) 김윤식(金允植)이 유배되어 1898년 1월 도착할 때의 기록을 보면 산지포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이미 산지포 또는 산

16) 『한라일보』 제48호 (1989. 06. 17).



1930년대의 건입포(健入浦) | 서방파제(西防波堤) 공사가 시작되었고 동부두는 아직 착공되기 이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저포로 부르고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건들개’라고 불렀다. 한자 표기는 건입포(健入浦)였다.

1653년(효종 4)에 나온 『탐라지(耽羅志)』¹⁷⁾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읍지류(邑誌類)에는 거의 건입포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산지포는 조선 말기 이후로는 산지포 또는 건입포로 병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건들개(健入浦)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고후(高厚) 세 형제가 신라에 입조하고 돌아올 때 건입포로 들어오고 여기서 도민들의 환영을 받았다는 설화가 있다. 이 설화의 기록을 믿는다면 건입포는 탐라국(耽羅國) 최초의 포구였다고 할 것이다.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입포는 험난과 비애(悲哀)의 많은 이야기를 지녀 왔지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유구(琉球) 세자로 알려진 표류자들의 무참한 주검이다.

17) 신문에는 耽羅誌라 되어 있다. 耽羅志로 바로 잡음.



! 제주항(제주시 건입동) ! 동북쪽 사라봉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항. 동부두가 계속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탐라기년(耽羅紀年)』과 그 밖의 여러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비화(悲話)가 있다.

1611년(광해군 3) 9월 유구국의 세자가 표류하다 죽서루(竹西樓, 제주성 북쪽 건입포에 면해 있던 누각) 아래 닿았다. 그 배에는 많은 보화를 실고 있었다. 일찍이 유구왕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세자가 부왕을 구하고자 대속(代贖)으로 마련한 재화를 실고 일본으로 가는 길이었다.

목사 이현(李玪)과 판관 문희현(文希賢)은 그 재화가 탐이 났다. 목사와 판관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심문했다. 그들이 지닌 재화 가운데는 주천석(酒泉石)과 만산장(漫山帳)도 있었다. 주천석은 가운데가 오목하게 패여 물을 담으면 저절로 술이 되는 신기한 돌이었다. 또 만산장은 바다 거미줄로 짠 포장인데 물이 새지 않으며 접으면 한 칸을 덮지만 펴면 큰 산이라도 덮을 수 있는 것이었다. 목사는 그것을 요구했으



! 건입포와 제주항(제주시 건입동) ! 서부두에서 바라본 건입포와 제주항. 왼쪽으로 영주십경 중 하나인 '사봉낙조'의 명승 사라봉이 보인다.

나 세자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마침내 바닷물에 던져버렸다.

목사(牧使)가 보화 가로채

화가난 목사는 세자와 뱃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나머지 재화는 모두 가로채 버렸다. 세자는 죽음에 이르러 슬픈 시를 읊고 최후를 마쳤다.

요어난명겅복신 堯語難明桀服身

임형하가소창민 臨刑何暇訴蒼旻

삼량임혈인수속 三良臨穴人誰贖

이지승주적불인 二子乘舟賊不仁

골폭사장전유초 骨暴沙場纏有草

혼귀고국조무친 魂歸故國弔無親

죽서루하도도수 竹西樓下滔滔水

유한분명인만춘 遺恨分明咽萬春

요임금의 어진 말도 걸왕의 포학을 말릴 수가 없는데.

죽음에 이른 몸이 어느 틈에 하늘에 호소할 것인가.

삼량(三良)의 구멍(인심 좋은 제주 땅)에 이르렀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고.

두 아들은 배를 탔다가 사람답지 못한 도둑을 만났네.

빠는 모래밭에 뒹굴어 먼지와 풀이 덮어줄지 모르지만.

외로운 혼이 돌아갈 고국엔 애도해줄 어버이도 없구나.

죽서루 아래 도도히 흐르는 물이.

못 푼 한을 밝히며 만고에 흐느껴 주리라….

일인(日人)들 때 지어 출몰(出沒)

그러나 이 무렵의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를 보면 이때의 목사는 이기빈(李箕賓)이었고 판관 문희현(文希賢)의 꺾에 넘어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이들은 침범한 적선(賊船)과 싸워 격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가 뒤에 탄로되어 모두 유배되었다. 배에는 중국인과 왜인 그리고 25~26세로 보이는 유구의 사신이 타고 있었는데 그는 글에 능하여 목사에게 글을 써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젊은 사신이 유구의 세자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건입포에는 1358년(공민왕 7) 처음으로 왜적이 침범한 것을 비롯하

여 몇 차례의 왜구(倭寇)를 치르지만 타 지역처럼 빈번했거나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일본 어선들의 횡포가 자주 일어났다. 이들은 무장하고 때 지어 제주연안을 침범하였는데 1891년(고종 28) 5월에는 건입포 앞바다에서 충돌사건이 벌어졌다. 이때 일인 어부들은 장검과 조총(鳥銃) 등으로 무장하였는데 고기잡이를 제지하는¹⁸⁾ 제주 어민들과 충돌, 임순백(任順伯) 등 16명의 어민이 일인의 총검에 살상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외무독판(外務督辦) 민중묵(閔鍾默)이 일본 공사에게 항의하는 외교 문제로 발전하였으며 일본의 어업 침략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었다.

매립(埋立)공사로 또 진통(陣痛)

이 건입포가 지금과 같이 항구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1926년 제주항 축항공사가 착수되면서부터였다. 일제하에서 착공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기를 거듭하면서 해마다 모양을 바꿔 온 산지항은 이제 탑동(塔洞) 매립 공사로 일찍이 없던 진통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 온 매립공사나 축항공사에 대한 평가는 뒷날 역사가 규정해 주리라고 믿는다.

18) 신문에는 ‘제시하는’으로 되어 있다. ‘제지하는’으로 바로 잡음.